

‘사천피’ 시대 열렸는데…지역 증시, 한전 쇼크에 ‘역주행’

12월 시총 8.1% ↓ …전체시장 7% ↑ 대조

한전 한 달새 3조4천억원 증발 ‘직격탄’

코스닥은 반등…에스오에스랩 등 ‘활짝’

전국 증시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열풍과 정부의 지원책에 힘입어 ‘코스피 4,550선’을 돌파하는 등 뜨겁게 달아올랐으나, 광주·전남 지역 증시는 지역 내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전력의 부진으로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8일 한국거래소 광주혁신성장센터가 발표한 ‘2025년 12월 광주·전남 지역 상장법인 증시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지역 상장법인 38개사의 시가총액은 40조66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43조5천947억원) 대비 8.1% (3조5천285억원)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7.3% 상승하고 전체 시장 시가총액이 7.0%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지역 증시만 극심한 소의 현

상을 겪은 셈이다.

◇‘한전 쇼크’에 무너진 유가증권시장

시총 비중도 하락 지역 증시의 하락세를 주도한 것은 시가총액 비중이 압도적인 한국전력이었다. 한국전력은 한 달 동안 시가총액 3조4천24억원이 증발하며 지역 전체 시총 감소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영향으로 광주·전남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사 16곳의 시총은 전월보다 8.7% 줄어든 38조850억원에 그쳤다.

전체 시장에서 지역 상장법인이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 역시 전월 1.2%에서 1.0%로 0.2%p 하락하며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투자자들의 거래도 주춤했다. 12월 지역 투자자 거래대금은 5조1천744억원으로 전월 대비 1.0% 감소하며 관망세가 짙어졌다.

◇코스닥은 ‘훈풍’…에스오에스랩 등 개별 종목 약진

유가증권시장과 달리 코스닥 시장은 반등에 성공하며 대조를 이뤘다. 지역 코스닥 상장사 22

곳의 시가총액은 전월 대비 4.3% (809억원) 증가한 1조9천812억원을 기록했다.

개별 종목별로는 광주의 에스오에스랩이 시가총액 816억원 (47.6%)을 불리며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금호건설우가 88.9%라는 압도적인 시총 증가율을 기록하며 눈길을 끌었으며, 화천기공 (13.6%) 등도 견조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전국 증시는 AI·반도체 주도로 ‘사천피’ 안착 한편, 12월 전체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AI 산업 지원 기대감과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강한 상승 랠리를 펼쳤다. 코스피는 월초 자동차 관세율 인하 등 호재 속에 상승을 시작해 중순께 AI 고령가 우려로 잠시 주춤했으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며 4,214.17p로 장을 마감했다.

증시 관계자는 “전체 시장이 대형 우량주와 신산업 중심으로 활기를 띠고 있지만, 광주·전남은 특정 대형주에 쏠린 구조적 한계로 인해 지



상승 마감한 코스피 코스피가 증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8일 서울 증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종가가 표시돼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장보다 1.31포인트(0.03%) 오른 4,552.37에,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3.33포인트(0.35%) 내린 944.06에 장을 마쳤다. /연합뉴스

수 상승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며 “다만 채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라고 분석했다. /임재만 기자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는 8일 광주시 웨딩그림 위더스에서 전남도회 소속 대표회원 120여명과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 박용희 건설공제조합 광주전남금융센터장 등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건설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제공)

건설협회 전남도회, 2026 건설인 신년인사회 개최

소속 대표회원 등 참석

박경재 회장 “공사비 현실화 추진”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는 8일 광주시 웨딩그림 위더스에서 ‘2026 건설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남도회 소속 대표회원 120여명과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 박용희 건설

공제조합 광주전남금융센터장 등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경재 건설협회 전남도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건설산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물량확보를 위한 SOC예산 확대, 낙찰률 상향을 통한 공사비 현실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또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신년 인사말씀을

통해 “지난 한 해 전남도가 건설인의 성원에 힘입어 AI와 에너지로 미래를 열어가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 신년인사회에서는 건설시공과 공정한 하도급 문화 조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박경재 회장 등 20명의 유공자에 대한 전남도지사 표창장 수여식도 이어졌다.

/임재만 기자

분기 영업익 20조 시대…삼성전자 ‘왕의 귀환’

삼성전자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분기 영업 이익 20조원’ 시대를 열며 한국 기업의 새 역사를 썼다. 글로벌 IT 산업 전체를 통틀어서도 손꼽히는 실적을 거두면서 그동안 부진을 면치 못

했던 반도체 최강자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평가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8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0조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8.2%, 전 분기 대비 64.3% 급증한 수치다. 분기 영업이익이 20조원을 넘어선 것은 국내 기업 중 삼성전자가 처음이다.

종전 기록이었던 메모리 슈퍼사이클 당시 (2018년 3분기 17조5천700억원)를 7년 만에 갈아치우며 자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임재만 기자

한전-LS전선, 세계 최초 케이블 상태판정 기술 MOU

공동 사업화 추진으로 세계시장 선점

한국전력이 자체 개발한 케이블 상태 판정 기술 사업화를 통해 세계시장 진출에 발판을 마련했다.

한전은 8일 “최근 CES 2026 행사가 개최되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한전의 지중·해저케이블 상태판정 기술 SFL-R(Smart Fault Locator-Real Time, 실시간 탐지 기술)의 사업화 협력과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해 LS전선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에는 한전 김동철 사장과 LS전선 구본규 사장 등 양사 경영진이 참석했다.

한전이 개발한 SFL-R 기술은 실시간 전류 모니터링과 노이즈 제거기법을 통해 고장과 동시에 99% 이상의 정확도로 고장을 탐지하는 신기술이다.

현재 제주 #1 HVDC, 제주 #3 HVDC, 북당진-고덕 HVDC에서 운영중인 세계 유일의 실시간 전류 신호 측정 방식의 장거리 HVDC 케이블 모니터링 기술이다.

또한 기존 SFL 기술과 달리 대상 선로의 운영 데이터를 활용해 고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어, 상용화 될 경우 더욱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다.

이번 계약을 통해 LS전선은 자체 운영중인 해저케이블 자산관리 플랫폼에 한전의 SFL-R 기술 탑재가 가능해졌으며, 순수 국내 기술을 이용한 차별화된 시스템 구축으로 글로벌 해저케이블 시장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됐다.

양사는 LS전선 해저케이블 입찰 시 한전의 SFL-R 기술이 탑재된 통합 자산관리 플랫폼 출시와 진단 솔루션을 기반으로 공동 사업화를 추진해 글로벌 시장 선점과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에 지속 협력할 예정이다.

김동철 사장은 “이번 협약은 국내 전력케이블 제조·운영 통합 솔루션 사업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SFL 분야를 넘어 초전도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기술 교류로 세계시장에 공동 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만 기자



HDKorea

(주)에이치디코리아는 DJI 컨슈머드론 전문판매 및 핸드헬드 전문판매 업체로서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만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양한 DJI 드론 및 카메라, 짐벌 제품 등 체험 해보세요.”

임동점	광주 북구 금남로 24 Tel. 062) 522-2000
금호빌드점	광주 서구 군부2로 54 Tel. 062) 350-8397

누구나 원하지만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하늘아래 단 하나의 터

한국불교태고종 해원정사 추모원

법당형 봉안당 시스템 **해원정사 VIP추모원**

- 1 편리한 접근성**
광주광역시 중심 동구에 위치하며 어디에서나 편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 2 명품안치단**
극락전 VIP안치단은 고인이 유품을 고이 간직할 수 있도록 더 넓고 화려한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 3 극락전VIP추모관**
내부에서 고품위 자연재광이 되도록 설계 하였고, 한온·한습시스템으로 고인을 쾌적하게 모십니다.
- 4 해원정사 추모원을 중심으로 문화행사**
 - 명상과 힐링 프로그램
 - 매년 가을에 추모산사음악회 개최
 - 해원정사 추모원에 모시는 영가님들의 극락왕생을 위하여 스님께서 매일 기도를 해드립니다.
 - 매월 음력18일 지장재일과 백중, 구정, 추석 등 매년 15회 합동제사를 봉행하여 드립니다.
 - 추모관은 한국불교태고종 해원정사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고, 보안은 5중보안시스템을 사용하여 더욱 안전합니다.

프리미엄 봉안당 지금 준비가 가장 현명
10년후면 더 비싸집니다. 봉안당은 부동산의 성격을 가집니다.
미리 구매하여 비용을 절감하세요!

VIP 가격표 (관리비 별도)	
개인 단	400백만원 ~
부부 단	800백만원 ~ 2,400백만원

한국불교태고종 해원정사 추모원

광주광역시 동구 분산길 100
www.haewonjungsas.com

대표전화 | 062-234-4576